

의과대학생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및 진로에 대한 조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정희·배철영·신동학

서 론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은 점차 전문화, 세분화되어 대부분의 의사수련과정을 단과전문의로만 편중되게 함으로써 환자의 질병을 쪼개어 구분하여 치료하고 환자를 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비인간적인 의료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1977년 의료보험 실시후 잠정적인 의료수요가 표면화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경한 질환까지 종합병원을 찾음으로써 의료전달 체계상 큰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에 가정의학은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진료를 시행하는 한 분야로 대두되었다. 이번 조사는 의료전달체계에 활성화를 가져다 줄 가정의학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지식과 태도 및 졸업후와 수련후의 진로선택, 의과대학생이 지각한 가정의학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가정의학 임상실습전과 후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및 진로선택의 변화를 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루어졌다.

재료 및 방법

조사기간은 1991년 9월 3일부터 1991년 10월 3일 사이의 1달간이었으며, 2회에 걸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들에게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한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편집하고 정리하여 부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를 사용하였으며 가정의학을 선택한 학생군과 여타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총 323명중 남자는 264명(81.7%)이었고, 여자는 59명(18.3%)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20~24세가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세 이상도 3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0.3%, 2학년이 27.9%, 3학년이 21.1%, 4학년이 20.7%였다. 종교별로는 무교가 49.7%로 가장 많았고, 종교를 가진 학생중에는 기독교가 29.7%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15.6%), 불교(4.4%)순으로 나타났다. 성장지로는 71.3%가 대도시 출신이었고, 중소도시는 16.2%, 농어촌은 10.9%였다. 부모의 직업으로는 비의료직이 83.1%로 가장 많았고, 의료직은 12.2%였고, 평균 월수입은 100~200만원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60~100만원대가 32.8%, 200만원 이상이 12.9%, 40~60만원이 11.9%였다. 가족적 분위기로는 개방적이다(24.4%)와 보수적이다(24.1%)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간정도라는 대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본인의 성격으로 내성적이다가 27.6%로 외향적이다의 17.0%보다 많았다(표 1).

2.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가정의학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안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53.4%였고 그중 남자가 51.5%, 여자가 62.1%로 여자가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별로는 안다는 학생이 4학년이 53%, 3학년이 92.6%, 2학년이 42.2%, 1학년이 36.5%로 3학년에서 유의성있게 높았다($P < 0.05$). 이는 3학년만이 가정의학 수업을 받았기 때문인것으로 생각된다(표 2).

3. 알게된 경위

“가정 의학을 알게된 경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 이 논문은 1992년도 계명대학교 울종연구비 및 농산의료원 조사연구비로 이루어졌음.

Table 1. Summary of informa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tem Variables	Number	Percent
Sex		
Male	264	81.7
Female	59	18.3
Age (Year)		
20-24	277	89.6
25-29	29	9.5
Over 30	3	0.9
Grade		
First	98	30.3
Second	90	27.9
Third	68	21.1
Fourth	67	20.7
Religion		
None	159	49.7
Buddhism	14	4.4
Christian	95	29.7
Catholic	50	15.6
Others	2	0.6
Grown up place		
Large city	229	71.3
Small city	52	16.2
Rural	35	10.9
Others	5	1.6
Father's occupation		
None	15	4.7
Medical	39	12.2
Non Medical	266	83.1
Average monthly income (Thousands Won)		
Below 400	14	4.7
400-600	36	11.9
600-1000	99	32.8
1000-2000	114	37.7
Above 2000	39	12.9
Family atmosphere		
Open hearted	78	24.3
Conservative	77	24.1
Neutral	165	51.6
Personality		
Introspective	89	27.6
Extroversive	55	17.0
Neutral	179	55.0
Total No. Answered	323	

Table 2. Knowledge of family medicine

Variables	Yes(%)	No(%)	Total(%)
Sex			
Male	135(51.5)	127(48.5)	262(100.0)
Female	36(62.1)	22(37.9)	58(100.0)
Grade*			
First	35(36.5)	61(63.5)	96(100.0)
Second	38(42.2)	52(57.8)	90(100.0)
Third	63(92.6)	5(7.4)	68(100.0)
Fourth	35(53.0)	31(47.0)	66(100.0)
Total	171(53.4)	149(46.6)	320(100.0)

*: P<0.05

선배나 동료들 통해서가 41.3%로 가장 많았고, 교수님을 통해서가 27.9%, 메스컴이 15.1%, 가족 친지를 통해서가 9.9% 순으로 나타났다(표 3).

Table 3. Routes of knowledge of family medicine

Routes	Number	Percent
Senior or colleague	71	41.3
Professor	48	27.9
Mass media	26	15.1
Family	17	9.9
Others	9	5.8
Total	171	100.0

4.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했는가.

“가정의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했는가”라는 질문에 56%가 알려고 노력했다고 답했으며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표 4).

Table 4. Effort to know family medicine

Variables	Yes(%)	No(%)	Total(%)
Sex			
Male	47(34.3)	90(65.7)	137(100.0)
Female	9(25.0)	27(75.0)	36(100.0)
Grade			
First	9(24.3)	28(75.7)	37(100.0)
Second	12(32.4)	25(67.7)	37(100.0)
Third	25(41.0)	36(59.0)	61(100.0)
Fourth	10(26.3)	28(73.7)	38(100.0)
Total	56(32.4)	117(67.6)	173(100.0)

Table 5. Attitude of family medicine

Variables	Necessary No.(%)	Unnecessary No.(%)	Neutral No.(%)	Unknown No.(%)	Total No.(%)
Sex					
Male	101(73.7)	4(2.9)	21(15.3)	11(8.1)	137(100.0)
Female	31(88.5)	1(2.9)	1(2.9)	2(5.7)	35(100.0)
Grade					
First	25(67.6)	2(5.4)	6(16.2)	4(10.8)	37(100.0)
Second	31(86.1)	0(0.0)	2(5.6)	3(8.3)	36(100.0)
Third	47(77.1)	1(1.6)	10(16.4)	3(4.9)	61(100.0)
Fourth	29(76.3)	2(5.3)	4(10.5)	3(7.9)	38(100.0)
Total	132(76.7)	5(2.9)	22(12.8)	13(7.6)	172(100.0)

5. 가정의학의 필요성

“가정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6.7%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4%의 학생이 그저 그렇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2.9%만이 필요없다고 응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었으며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표 5).

6. 졸업후의 진료 선택 여부

“졸업후에 진로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219명(69.7%)이 아직 결정을 안했다고 했으며, 95명(30.3%)만이 결정한 상태였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에서 결정률이 53.8%로 유의성있게 높았다(P<0.05)(표 6).

Table 6. Decision to select a speciality*

Grade	Yes (%)	No (%)	Total(%)
First	25(26.0)	71(74.0)	96(100.0)
Second	23(26.4)	64(73.6)	87(100.0)
Third	12(18.2)	54(81.8)	66(100.0)
Fourth	35(53.8)	30(46.2)	65(100.0)
Total	95(30.3)	219(69.7)	314(100.0)

*: P<0.05

7. 가정의학 선택군과 여타군간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

“졸업후에 무슨과를 전공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전체학생의 18%가 가정의학을 선택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성있게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가정의학 수업을 받은 3학년에서 34.5%, 종교로는

기독교를 믿는 학생에서 48.2%로 유의성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그외 성장지나 부모의 직업, 평균 월수입, 가족적 분위기, 본인의 성격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Table 7. Comparison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family medicine and other speciality groups

Variables	Family medicine (%)	Others (%)	Total
Sex*			
male	40(69.0)	224(84.5)	264
Female	18(31.0)	41(15.5)	59
Grade*			
First	15(25.9)	83(31.4)	98
Second	8(13.8)	82(30.9)	90
Third	20(34.4)	48(18.1)	68
Fourth	15(25.9)	52(19.6)	67
Religion*			
None	16(28.6)	143(54.2)	159
Buddhism	1(1.8)	13(4.9)	14
Christian	27(48.2)	68(25.8)	95
Catholic	20(19.6)	30(14.8)	50
Others	1(1.8)	1(0.3)	2

*: P<0.05

8. 가정의학을 택한 이유

“가정의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의 철학적 사상과 맞는다가 44.8%로 가장 많았고, 전망이 좋을것 같다가 17.2%, 지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가 15.5%, 여가 시간이 많다가 10.3%순이었다(표 8).

Table 8. Reason to select family medicine as a speciality

	Number	Percent
Philosophical	26	45.0
Prospective	10	17.2
Intellectual satisfaction	9	15.5
More leisure time	6	10.3
Others	5	8.6
Recommendation by others	1	1.7
Lecture & clerkship	1	1.7
Total	58	100.0

9. 가정의학과를 택하지 않은 이유

“가정의학과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의학과에 대해 잘 몰라서가 37.7%,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고 제도가 미숙해서가 24.5%로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를 차지했고, 그외 우리나라 현실에 잘못지 않아서, 지적 만족을 얻을수 없어서의 순이었다(표 9).

Table 9. Reason not to select family medicine as a speciality

	Number	Percent
Unawareness of Family Medicine	89	37.7
Problem with training	58	24.6
Unrealistic	27	11.5
Intellectual unsatisfaction	25	10.6
Low respectability	16	6.8
Others	14	5.9
Opinion of senior or family	4	1.7
Low income	2	0.8
Poor department environment	1	0.4
Total	236	100.0

10. 수련후의 진료

“수련후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42.9%의 학생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진로를 결정한 학생가운데는 대학병원스태프로 남고자 하는 학생이 20.2%로 가장 많았고 그외 개업이 16.7%, 종합병원 스태프가 14.4%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의학을 선택한 학생과 여타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10).

Table 10. Course after training

Course	Family medicine (%)	Others (%)	Total
Not decided	31(53.4)	103(40.2)	134
University staff	7(12.2)	56(22.4)	63
Practice	9(15.5)	43(16.9)	52
Hospital staff	4(6.9)	41(16.1)	45
Public office	4(6.9)	4(1.6)	8
Others	2(3.4)	6(2.4)	8
Industry, school	1(1.7)	1(0.4)	2
Total	58(100.0)	254(100.0)	312

11. 개업장소

“만약 귀하가 개업을 하다면 어디에서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36.5%의 학생이 중소도시를 택했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 25.2%, 대도시가 21.3%로 반수이상의 학생이 개업장소로 도시를 선호했으며 농어촌을 택한 학생은 5.3%에 불과했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의학을 선택한 학생과 여타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11).

Table 11. Future place to practice

Place	Family medicine (%)	Others (%)	Total
Small city	26(44.8)	84(34.6)	110
Large city	6(10.4)	58(23.9)	64
Any Place	2(3.4)	33(13.6)	35
Rural area	3(5.2)	13(5.3)	16
Not decide	21(36.2)	55(22.6)	76
Total	58(100.0)	243(100.0)	301

Table 12. Reason to practice in rural area

Reason	Number	Percent
Lack of manpower	8	49.6
Better benefit to patient	6	37.8
Preference of rural area	1	6.3
Born at rural area	1	6.3
Total	16	100.0

12. 농어촌에 개업하려는 이유

“농어촌에 개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농어촌에 의사가 부족하므로가 50.0%로 가장

많았고, 환자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가 37.5%, 농어촌 분위기가 좋아서가 6.3%, 농어촌 출신이므로가 6.3% 순이었다(표 12).

고 찰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가정의학이¹⁾ 한국에 소개되어 1976년부터 수련과정이 시작된 이래 십여년이 경과했다. 아직까지 가정의학의 현실과 미래는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고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1992년 시점에서 가정의학에 대한 의과대학생들의 인식도 및 가정의학 선택군과 여타 전문과목 선택군간의 일반적인 특성과 수련후 진로등을 조사해봄으로써 가정의학의 현황과 위상을 다시한번 냉철히 바라보고 더욱더 정진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53.4%가 가정의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으며, 성별차이는 없었으나 학년별로는 가정의학 수업을 받은 3학년에서 92.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80년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²⁾의 95.6%나, 1982년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³⁾의 93.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알게된 경위로는 선배나 동료, 교수님을 통해서라는 대답이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학과 수업과 가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가 의과대학생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의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한 사람은 응답자의 32.4%에 불과해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진달체계에서 가족을 단위로 진료하는 초진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부각되지 못함으로써 의과대학생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정의학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활동과 정부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겠다⁴⁾. 가정의학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6.7%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없다고 답한 학생은 2.9%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이 가정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었다. 이는 1984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⁵⁾의 65.5%나 조⁶⁾의 61.3%보다는 높았으나,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⁷⁾의 95.5%나 이⁸⁾의 93.2%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졸업후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전체의 30.3% 정도였고, 이는 4학년에서 53.8%로 유의성있게 높았다. 그러나 여전히 반수 이상의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도 아직 진

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업후에 가정의학과를 하겠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8%로 이⁹⁾의 38.0%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여타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과 비교했을때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학년별로는 가정의학 수업을 받은 3학년에서, 종교별로는 기독교에서 유의성있게 높았다. 성장지나 부모의 직업, 평균 월수입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의학을 택한 이유로는 반수이상의 학생이 자신의 철학적 사상과 맞아서라고 답했고, 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정의학에 대해 잘 몰라서와 수련과정에 문제가 있고 제도가 미숙하다가 60% 정도를 차지했다. 앞으로 가정의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가정의학에 대한 부지를 없애고 수련과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의과대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의학 수업을 받기전과 받은 후의 추적조사를 통해 선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며, Wilson¹⁰⁾ 등에 의하면 가정의학 선택 비율이 임상실습 전의 14%에서 임상실습 후의 20%로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P<0.05).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수련후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 가운데 90% 가량의 학생이 대학병원 스텝이나 개업, 종합병원 스텝으로 남고자 했으며, 나머지 소수의 학생만이 공직이나 산업상, 학교 보건등을 하겠다고 했다^{11,12)}. 개업하려는 사람중에도 반수 이상이 도시를 개업장소로 선호했다^{13,14)}. 이 결과는 가정 의학을 선택한 학생이나 여타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진료^{15,16)}를 담당해야 할 가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는 의료인력 및 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농어촌에 개업하려는 학생 가운데는 농어촌에 의사가 부족하고 환자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어촌 출신이기 때문에는 6.3%로 농어촌 출신의 학생조차도 농어촌에 개업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학생들의 의식변화는 물론 농어촌 의료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망되며 앞으로 실시될 의료진달체계에서 가정의들이 가족을 단위로 진료하는 초진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17,18)} 가정의학의 인식에 관한 범국민적인 홍보활동과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겠다.

요 약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이 점차 전문화, 세분화되어 의사 수련과정이 단과전문의로만 편중되었다. 이에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진료를 시행하는 가정의학이 한 분야로 대두되었다. 이번 조사는 의과대학생의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졸업후와 수련후의 진로선택, 의과대학생이 지적인 가정의학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가정의학의 발전에 참고가 되기 위해 시행하였다.

1991년 9월 3일부터 1991년 10월 3일까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한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정 의학을 선택한 학생군과 여타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군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가정의학에 대해 알고있는 학생은 전체의 53.4%였고,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의 현실에 가정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가정 의학을 전공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 전체의 18%였고, 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정의학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다. 수련후의 진로나 개업장소등에서 가정의학 선택군과 여타 전문과목 선택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학이 전문의 과정으로 채택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에게 조차 그 인식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의학을 선택한 학생군과 여타 전문과목 선택군간의 그 진로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가정 의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가정 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Gagg J, Ven W: The demand for primary health care. *Med Care* 1978; 26: 299-312.
- McKinlay JB: Social networks, lay consultation and help seeking behavior. *Social Forces* 1973; 51: 275-291.
- McWhinney IR: Family medicine as a science. *J Fam Pract* 1978; 7: 53-58.
- 윤방부: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소고. *가정의* 1982; 3: 43-45.
- 이강진 외: 의과대학생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 1982; 7: 1-5.
- 곽기우: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분석. *가정의* 1983; 4: 46-47.
- 윤방부: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조사. *가정의* 1984; 5: 1-7.
- 조경환 외: 일부 지역사회 주민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 1986; 7: 1-5.
- 윤방부: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소고. *가정의* 1980; 1: 5-9.
- Wilson JL: A Family Practice Preceptorship. *Fam Pract Res J* 1983; 3: 48-50.
- Becker MH: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Health Educ Monger* 1974; 2: 326-327.
- Brightman IJ: Knowledge and utilization of health resources by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m J Public Health* 1958; 48: 188-199.
- Backett EM, Heaky JA, Evans JCG: Studies of a general practice(II). the doctor's job in an urban area. *Br Med J* 1954; 1: 109-115.
- Fry, J: The Place of General Practice. *Int J Health Serv* 1981; 2: 165-69.
- Rakel RE: *Principles of Family Medicine*.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77, pp 1-10.
- Taylor RB: *Family Medicine-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1978, pp 1-16.
- Suchman EA: Stages of illness and medical care. *J Health Soc Behav* 1965; 6: 114-128.
- Smilkstein G: The family APGAR score,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 *J Fam Pract* 1978; 6: 1231-1239.

= Abstract =

Awareness of Family Medicine Among Medical Students

Jung Hee Kim, MD; Chul Young Bae, MD; Dong Hak Shi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As modern medical science has developed, medical science gradually gets to specialized and subdivided. As a result, intern and resident doctoral courses concentrated upon education of medical specialities. Therefore, the family medicine has become a branch of medical science that has characterized with continuous, comprehensive and first contact care. This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family medicine and selection of medical specialities among medical student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medical students in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among whom 323 responded, from September 3 to October 3, 1991. The results were analyzed after dividing into two groups, those choosing family medicine and those choosing a medical speciality other than family medicine. 53.4 percent of the students has already recognized of family medicine, most of the students thought that family medicine was necessary in Korea. The main reason not choosing it was their unawareness of i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 group choosing family medicine and the student group choosing a medical speciality other than family medicin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medical students still have a scanty knowledge and attitude of family medicine and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 selecting family medicine and the group selecting other than family medicine as a speciality. Therefore, more emphasis on education and advertisement of family medicine needed.

Key Words: Awareness of family medicine, Medical students